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나)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제자리를 떠난 단추처럼
 마음이 **허전하다**
 늘 그 자리에 마치 존재의 이유인 듯
 붙어 있을 때는 몰랐다
 떨어져 **빈자리**가 생긴 뒤에야
 단추의 의미를 알겠다
 외투를 입을 때마다
 손가락에 걸리던 단추
 습관처럼 채우던 그 단추가
 단순한 잠금만이 아니었음을
 나와 세상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였음을
 헐거워진 실밥을 미리 살피지 못한 탓일까
 무심코 잡아당긴 탓일까
 떨어진 단추는 지난 시간의
작은 방심과 소홀함을 깨닫게 한다
 나는 실과 바늘을 찾아
 단추를 단다
 옷과 단추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옷에 매다는 것은

단추가 아니라 어쩌면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제자리를 찾은 단추처럼
 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천양희 「단추를 달며」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황폐화를 그리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⑤ (가)는 현재 시제를 중심으로, (나)는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선연히'는 혹한이라는 배경과 대비되며 나타나는 성에꽃의 생생한 존재감을 시각적으로 부각한다.
 ② (나)에서 '정성스레'는 화자가 단추를 다는 행위에 부여하는 내면적 의미와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축한다.
 ③ (가)에서 '막막한 한숨'과 '푸석한 얼굴'은 타인의 애환에 공감하는 화자의 연민과 내면의 쓸쓸함을, (나)에서 '허전하다'와 '빈자리'는 대상 상실이 야기한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적 결핍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 '성에꽃 한 잎 지우고'는 대상과의 교감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조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나)에서 '작은 방심과 소홀함'은 상실의 근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⑤ (가)에서 '친구여'는 부재하는 존재를 호명하여 시적 공간에 애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에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단정하지 않는 진술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의 여지를 남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 속 화자는 종종 일상의 평범하거나 사소해 보이는 대상 또는 사건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닌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나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한다. (가)는 찰나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서, (나)는 생활 속 작은 사물의 결합에서 이러한 성찰의 계기를 찾는다. 두 작품 모두 이러한 발견과 성찰을 통해 소외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관계의 회복이나 삶의 긍정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 ① (가)에서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모여 ‘성에꽃’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평범한 존재들의 삶의 흔적이 찰나적 현상을 통해 미적 가치로 재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② (가)에서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찰나적 현상인 ‘성에꽃’을 통해 과거의 단절된 관계를 성찰하며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생활 속 작은 사물의 결합’으로 보고, 이로 인해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낀 것은, 사소한 사건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 (나)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단추를 단다’는 것은, ‘작은 사물의 결합’을 보완하는 행위를 통해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 즉,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화자의 능동적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⑤ (가)에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와 (나)에서 ‘단추를 단다’는 행위는, 모두 화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발견한 가치를 통해 내면의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렁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이신의 「사우가」

(나)
 한양(漢陽)을 하직(辭直)하고 친척벗님네
 다 이별하며 풍운(風雲)이 다뿔모여 백일(白日)이
 어두우니, ㉠장부의 위국충심(爲國衷心)
 어느 각(刻)에 잊을는고.
 관방(關防)을 나올 적에 말 위에 비껴 앉아
 고국산천(故國山川)을 다시 보자 하였더니,
 ㉡두만강(豆滿江) 건넌 물이 어름조차 얼었구나.
 바람은 귀밑에 불고 눈은 얼굴을 때리나니,
 ㉢삭풍(朔風)은 더욱 차고 행색은 초췌하다.
 ㉣궁려(穹廬)삼백 리에 어느 날 돌아갈꼬.
 매일 밤 시름없이 임금 계신 곳 바라보니,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변(變)할 줄이 있으랴.
 흥안령(興安嶺) 높은 고개 무정(無情)하게 넘어가니,
 광야(曠野)는 아득하여 하늘과 땅뿐이로다.
 - 조위인 「출새곡」

(다)
 내 생활은 단순하고 단조하다. 그러나 그 단순하고 단조한 생활에도 가끔 기적은 일어난다. 스무 살이 되기 전이었다. 나는 M이라는 친구와 처음으로 동경 교외의 작은 길을 걷고 있었다. 아사코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하얀 모시 원피스에 하얀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모자를 누르며 우리 옆을 지나갔다. ‘참 예쁜 소녀다’ 하고 내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M은 자기가 아는 이웃집 아이라고 했다.
 얼마 후 M의 집에서 아사코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와 동갑인 M의 누이동생의 친구였다. 우리는 정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사코는 영어를 잘했고, 발음은 나보다 훨씬 정확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의 청아한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활동사진 구경을 갔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사코는 분명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십 년이 지난 후, 나는 우연히 동경 시내에서 아사코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어느덧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있었고, 남편은 내가 문학을 통해 이름을 아는 시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귀여운 딸 하나가 있었다. 아사코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소녀 시절의 옛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의 품위가 느껴졌다.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 문학,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히, 그러나 많은 것을 변화시키며 흘러 있었다. 그날 나는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십수 년이 더 지났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신문 한구석에서 아사코의 사망 기사를 읽었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짧았던 **세번의 만남**, 긴 기다림과 그리움. 내 가슴은 메이는 듯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있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사람의 일생은 결국 시간과 기억의 직물이 아닐까. 아사코는 내게 그런 시간의 한 조각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 피천득, 「인연」

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 사회의 문제점과 대비하여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현실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 및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5.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은 문답 형식을 통해 시적 대상을 한정하고, 종장은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다.
- ② <제2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모두 자연물의 불변하는 속성을 제시한 후, 중장에서 이를 물의 속성과 연결하여 예찬한다.
- ③ <제3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언급된 가변적 자연물(꽃, 풀)을 통해 인간 삶의 유한함을 암시하고, 종장에서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인다.
- ④ <제4수>는 초장에서 자연물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중장에서 특정 대상의 불변성에 대한 감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종장에서 그 이유를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는다.
- ⑤ <제5수>는 초장에서 대상의 남다른 외양을 부각하고, 중장에서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예찬한 후, 종장에서 화자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6.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출새곡>은 작가가 북방으로 사행(使行)하는 여정에서의 견문과 감회를 노래한 가사입니다. 화자는 낮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겪는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고국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와 심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① ㉠을 통해, 어려운 여정 중에도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굳건한 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을 통해, 얼어붙은 강물의 모습에서 화자가 마주한 북방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그로 인한 여정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을 통해, 매서운 바람과 초라한 행색은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화자의 나약한 심정을 보여주는 군.
- ④ ㉣을 통해,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고국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군.
- ⑤ ㉣을 통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지키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7.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동산(東山)’은 화자가 자연과 합일하는 이상적 공간을, (나)의 ‘광야(曠野)’는 화자가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무엇하리’는 다섯 벼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나)의 ‘어느 날’은 기약 없는 귀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함축한다.
- ③ (가)의 ‘술’은 시련을 건디는 강직함을, (나)의 ‘홍안령’은 넘어서야 할 외부 세계의 위협을 상징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 ④ (가)의 ‘모르느냐’는 대상의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나)의 ‘잊을는고’는 기억의 불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나타낸다.
- ⑤ (가)의 ‘좋아하노라’는 자연물에 대한 순간적인 미적 감흥을, (나)의 ‘바라보니’는 임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드러낸다.

8. (다)에 나타난 화자와 아사코의 **세 번의 만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만남의 기억은 화자에게 아사코의 옛된 모습과 청아한 목소리에 대한 인상으로 남아, 이후 만남과 대비되는 순수함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 ② 두 번째 만남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사코의 외적 변화와 함께, 이전보다 깊어진 내면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 ③ 세 번의 만남은 모두 화자가 미리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인연의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강조한다.
- ④ 화자는 세 번의 만남이라는 외적 사건과 그에 대한 내적 성찰을 교차하며, 인연과 시간의 의미를 탐구한다.
- ⑤ 세 번의 만남 이후 아사코의 부재는 화자에게 상실감을 안기지만, 동시에 그 만남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에서 화자나 서술자는 작가 자신인 경우가 많아, 작가의 생애나 창작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때로는 작가가 작품 속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인물이나 대상을 통해 작가의 목소리를 읽어낼 수 있다.

(가)는 작가가 혼란한 세속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변치 않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던 시기에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국가적 사명을 띠고 낯선 이국땅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느낀 복합적인 심정을 담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과거의 인연을 회상하며 삶의 단상들을 성찰적으로 기록한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수석(水石)과 송죽(松竹)’ 및 ‘달’을 벗으로 삼는 것은, 변하기 쉬운 세속적 관계를 떠나 변치 않는 자연물에서 이상적 가치를 찾으려는 작가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고국산천(故國山川)’을 돌아보며 ‘위국충심(爲國衷心)’을 다짐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을 안고 떠나는 작가의 책임감과 고국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다)에서 화자가 ‘아사코’와의 만남을 ‘시간의 한 조각’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는 것은, 과거의 특정 인연을 현재의 시점에서 성찰하며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의 회고적 시선이 담긴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달’을 ‘더욱 반갑고야’라고 표현한 것이나 (나)에서 ‘임금 계신 곳’을 ‘매일 밤 시름없이 바라보니’라고 한 것은, 모두 작가가 당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화자, (나)의 화자, (다)의 서술자는 모두 작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작품은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 그래서 그놈이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것이냐, 응?”

윤 직원 영감은 마치 짐작은 체면에 어울리지 않게, 버럭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아들 중수(宗洙)는 아버지의 그런 기세에 놀려, “글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하고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그런 모양이라니! 아, 이놈의 자식아! 네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모양이 어째! 응?”

윤 직원 영감은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짚으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동안 서울아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만 글썽이고 앉았을 뿐,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중학이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구…… 그게 사실이나?”

윤 직원 영감은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큰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중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네에…… 아버지님. 저도…… 자세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두…… 그런 것 같어유…….”

“그런 것 같어유?…… 응응, 그놈 사회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그게 배운 놈의 자식이 할 것이냐? 망둥이 같은 놈!”

윤 직원 영감은 여전히 변을 보던 자세 그대로 앉아서, 그러나 변은 다 본 듯 잠깐씩 몸을 비틀면서 연해 부채질만 하고 있더니, 느닷없이 벽력같은 고함을 지릅니다.

㉠“사회주의라니! 아,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오냐, 그놈을 내가 당장 잡아다가…… 그놈의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내쫓든지 해야지!”

㉡“이놈! 중학이 이놈! 너는 내가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손자놈이, 세상 망하라고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에 부족해서 불한당 같은 그런 불측한 사상을 품고 다녀? 응!”

윤 직원 영감은 주먹을 부르르 떨고 얼굴이 벌게졌습니다. 중수는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중학이두 인제는 다야 커서 자기 생각이 있을 테니까…… 또 그리고 지금 세상이…….”

“뭐야? 자기 생각? 허어, 그놈 똑똑한 줄은 알았더니, 필경 망령이 들었구나!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 부자놈이 천하에 제일 편한 것인데, 그걸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떻다구? 이 태평천하에! 응? 이 좋은 세상에 그놈이 불만은 대체 뭐란 말이냐, 불만은!”

윤 직원 영감은 한참이나 길길이 뛰다가, 문득 기운이 빠진 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하긴, 그것두 다 세상 탓이다. 이놈의 세상이 뒤집히지 않으려니까 그런 불령한 사상이 생겨나는 게지…….”

그러다가 다시 아들 중수에게로 눈을 흘기며,

㉤“너는 예비로서 뭘 했어? 자식새끼 하나를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중학이놈을 불러오지 못할까! 불러와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사죄를 시켜야겠다!”

㉥중수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황송한 듯 고개만 숙이고 섰습니다. 사실 중수로서도, 아들 중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빠져 있다는 풍설을 들은 지는 꽤 여러 날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설마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로서는 별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내가 뭘 어쩐다구…… 중학이 그놈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남달라서 내가 뭐라구 해두 들을 놈이 아닌데…… 설사 불러온들 그놈이 내 말을 듣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중수는 속으로만 끄끄 앓을 뿐이었습니다.

윤 직원 영감은 다시 코를 풀고 침을 뱉더니,
 ㉔“에이, 더럽다, 더러워! 이놈의 세상, 어서 망해 버리든지 해야지!
 …… 그래야 우리 집안이라두 안전할 게 아닌가!”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두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도
 록 단단히 단속해야지. 중학이 그놈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위태로
 워져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었습니다.
 -채만식「태평천하」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와 그가 지닌 가치관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부장적 권위의 약화에 직면한 인물이 느끼는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인물과 기성세대의 침에 한 이념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④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격렬한 대립을 통해 집안의 위기를 암시한다.
- ⑤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11.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계층적 관점을 기준으로 중학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 ② ㉔에서 종수는 중학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은 문제의 책임을 중학에게서 종수에게로 전가하며, 아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강압적인 명령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㉔와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중학의 행동과 종수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극심한 불쾌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㉔의 격앙된 어조는 ㉔에 나타난 종수의 조심스러운 해명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㉔에서 아들 종수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윗글의 ‘윤 직원 영감’과 ‘종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이 이룩한 부와 현재의 사회 질서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중학’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종수’는 아버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들 ‘중학’의 사상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중재하려 한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중학’의 사상 자체보다 그로 인해 가문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더 근본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중학’이 불온한 사상에 빠진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면서도, 진심으로 손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낸다.
- ⑤ ‘종수’는 아버지 앞에서는 침묵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중학’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며 아버지의 가치관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㉔~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의 서술자는 때때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논평하거나,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비판적,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인물의 발화나 생각을 직접 제시하여 생동감을 주기도 하며, 문장 부호의 특징적인 사용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발화의 효과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 ①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의 격앙된 발화를 직접 제시한 것은, 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독자가 상황의 긴장감을 느끼도록 하는군.
- ② ㉔에서 ‘태평천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은,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반어적 상황을 설정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인물의 왜곡된 인식을 풍자하려는 것이겠군.
- ③ ㉔에서 ‘황송한 듯’이라는 표현으로 종수의 태도를 묘사한 것은,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극도로 위축된 인물을 회화화하여 서술자의 비판적 거리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㉔에서 종수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말줄임표(……)를 반복 사용한 것은, 아들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사이에서 고뇌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결론짓지 못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나타내는군.
- ⑤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의 모순된 발언과 그에 이어지는 서술자의 설명을 병치한 것은, 인물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하여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서술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송나라 때 낙양 땅에 김전이라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성품이 간악하고 탐욕스러워 재물 모으기를 즐겼다. 그에게는 숙향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딸이 있었으나, 이는 하늘의 선녀가 죄를 입어 인간 세상에 잠시 내려온 것이었다. ㉠숙향이 다섯 살 되던 해, 부모와 함께 피란길에 올랐다가 그만 길에서 헤어져 홀로 남게 되었다. 사방은 어둡고 짐승 소리만 들려오니, 어린 숙향은 그저 목 놓아 울 뿐이었다. 이때 홀연 오색구름이 숙향을 감싸더니, 한 선녀가 나타나 숙향을 구름에 태워 깊은 산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끊긴 청학동으로, 마고 선녀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마고 선녀는 숙향을 가련히 여겨 친딸처럼 보살피며, 글공부와 여러 가지 도술을 가르치고, 또한 자수와 그림에도 능통하도록 하였다.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숙향이 열다섯 살이 되니, 그 용모는 월궁의 향아와 같고, 재주와 덕행은 인간 세상의 여인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어느 날 마고 선녀가 숙향을 불러 이르기를, “너는 본디 인간 세상의 귀한 인연을 타고났으니,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네 부모를 다시 만나고 천생연분인 이선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허나 네 운명에는 삼재팔난(三災八難)이 끼어 있으니,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야 행복을 얻으리라. 이는 하늘의 뜻이니 부디 지혜와 인내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 하며, 위급할 때 쓰라며 구슬 세 개와 신기한 그림 한 폭을 내어주고는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숙향은 눈물로 마고 선녀에게 하직하고 산을 내려와 길을 떠났으나, 험한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마고 선녀가 준 구슬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겨우 어느 마을에 당도하였으나,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다. ㉢그날 밤, 숙향은 어느 부잣집 행랑채 처마 밑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는 이 집의 토지신이다. 네 효성과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길을 인도하노니, 내일 아침 이 집 주인에게 네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얻으리라.” 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숙향은 꿈의 지시에 따라 그 집 주인인 장 승상을 찾아가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아뢰었다. 장 승상은 숙향의 용모가 비범하고 말이 정숙함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무남독녀 외동딸인 여옥과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옥은 성품이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아, 숙향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자수 솜씨를 질투하여 밤낮으로 구박하고 모함하였다. ㉣하루는 여옥이 자신의 값비싼 패물을 일부러 숨겨두고는 숙향이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다. 장 승상은 여옥의 말만 믿고 크게 노하여 숙향을 관아로 보내려 하였으나, 부인 양 씨가 간곡히 말려 겨우 매질만 당하고 헛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숙향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홀로 눈물만 흘리며 하늘에 기도할 뿐이었다.

㉤며칠 후, 장 승상이 황제의 명으로 변방에 사신으로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여옥은 숙향을 더욱 모질게 학대하며, 급기야는 숙향을 깊은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하였다. 숙향이 강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을 때, 홀연 물속에서 한 용녀가 나타나 숙향을 구출하여 수정궁으로 데려갔다. 정신을 차린 숙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니, 용녀가 위로하며 말하기를, “남자는 천상의 선녀로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니, 곧 귀한 인연을 만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주인공이 겪는 시련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우연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주인공의 행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배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작품 전체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통해 운명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 면모가 부각된다.

1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향’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천명(天命)을 수용하며,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을 통해 반복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
- ② ‘여옥’은 ‘숙향’의 출중한 외모와 재능에 대한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숙향’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다.
- ③ ‘장 승상’은 처음에는 ‘숙향’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판단력을 보이지만, 결국 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 ‘숙향’을 강물에 던지라고 직접 명령하는 냉혹함을 드러낸다.
- ④ ‘마고 선녀’와 ‘용녀’는 모두 ‘숙향’이 천상계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며, 그녀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결정적인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 ⑤ ‘이선’은 ‘숙향’과 천상에서부터 예정된 운명의 상대자로,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깊은 인연을 확인하지만 현실 세계의 규범으로 인해 일시적 이별을 겪는다.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인공의 삶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주인공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② ㉢은 인물이 처한 절망적 상황에서의 시간적 배경을, ㉣은 그 상황이 해결된 직후의 시간을 가리킨다.
- ③ ㉤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시작됨을, ㉡은 그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완결되었음을 보여준다.
- ④ ㉠부터 ㉣까지의 시간 표지는 모두 주인공에게 닥쳐올 불행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 ⑤ ㉠과 ㉡ 사이에는 긴장감 조성을 위해 여러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과 ㉣ 사이에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흘러갔음이 암시된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소설은 종종 천상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겪는 다층적인 시련과 그 극복 과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초월적 존재의 직접적 개입이나 예언,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등장, 위기 극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물이나 상징적 징표 등을 활용하여 서사의 필연성과 흥미를 동시에 확보한다. 또한, 주인공의 고난은 천상에서의 운명이나 전생의 업보와 연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상에서의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 장치들은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운명에 깊이 몰입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마고 선녀’가 ‘숙향’에게 앞날의 시련과 행복을 예언하고 위급할 때 쓸 구슬을 준 것은, 주인공의 시련이 천상에서부터 예정된 운명의 일부이며 초월적 존재의 계획된 도움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군.
- ② ‘용녀’가 ‘숙향’을 구출하여 용궁으로 인도하고 그녀가 천상 선녀임을 상기시키는 것은, 지상계에서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처한 주인공에게 천상계와 연결된 신이한 조력자가 나타나 구원하는 이원적 세계관의 특징을 보여주는 군.
- ③ ‘마고 선녀’가 준 구슬 덕분에 ‘숙향’이 도적에게 목숨을 건진 것은, 초월적 존재가 제공한 상징적 징표가 지상계의 현실적 위협을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여 서사의 필연성을 강화하는 군.
- ④ ‘숙향’이 ‘여옥’의 모함으로 헛간에 갇히고 이후 강물에 던져지는 사건들은, 주인공이 겪는 다층적 시련이 개인 간의 우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천상계의 질서나 예견된 운명과는 무관하게 지상계의 논리에 따라 전개됨을 보여주는 군.
- ⑤ ‘숙향’이 천상의 선녀였다는 설정과 용궁에서 ‘이선’과 만나는 사건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전기적 요소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천상에서부터 예정된 인연이라는 주제 의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군.